



DAERYUN NEWSLETTER VOL.18

[대륜 뉴스레터] 하청·파견 노동자도 싸울 권리...노란봉투법의 힘

하청·파견 노동자도 싸울 권리...노란봉투법의 힘

재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용자'의 정의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하청·파견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습니다. 근로자에게 예상되는 파급 효과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LEGAL INFORMATION

법·키피디아

잘못 쓴 의약품으로 피해 입었다면?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 신청 방법

확대된 관세청의 세정지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수사부당한 경찰 수사 결과는 '수사심의신청'으로 대응하세요

NOTABLE CASES

대륜이 합니다

'부탁으로 올린 것뿐인데...' 음란물유포죄 무죄 판결받은 사건

벌금도 억울해,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로 무죄 선고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방어해 의사 면허 지킨 사례

억울한 1억원 횡령금 반환소송, 원고 청구 기각 조력

INSIGHTS

언론 속 대륜

로리더



보험사기꾼 몰렸다가... 알고 보니 '억울한 사고'

내리막길 정차 중 미끄러져 주차된 동료 차와 충돌한 사고로 보험사에 의해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를 변호한 대륜 이지연 변호사는 "차량 충돌 직전의 상황과 충돌 부위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증명한 결과"임을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대륜, 상법 개정·노란 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대륜이 9월 3일 '2025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해당 세미나는 법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노사관계,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노사관계 전략과 지배구조에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실질적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위고비 열풍의 그림자... 범망 피한 다이어트 상술

위고비의 치솟는 인기와 함께 유사제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약사 출신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 위고비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처럼 혼동을 유도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C광주방송



거짓 리뷰 명예훼손 혐의 유튜브버, 끝내 무혐의로 끝난 사연

악의적인 가전제품 리뷰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유튜브버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튜브버를 대리한 대륜 조상수 변호사는 무혐의 결정을 이끈 쟁점으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머니S



세금 분쟁 폭증... 대형 로펌, 조세그룹 키운다

조세 분야 법률 시장이 급변하면서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조세그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행정그룹을 조세그룹과 행정그룹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정밀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저작권 침해 피소된 40대, 무혐의로 불기소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설계도를 업무용 블로그에 게시해 검찰에 송치된 40대 철골 제작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A씨의 실질적인 업무와 사용법에 대해 속지하지 않고 있을 등을 강조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CONTACT

조상수

T. 070-5117-3709

대표총괄변호사

곽내원

T. 070-5117-2950

대표총괄변호사

유재영

T. 070-5221-2805

최고총괄변호사

신종수

T. 070-7510-1046

최고총괄변호사

김광덕

T. 070-7510-2018

최고총괄변호사

장문규

T. 070-7510-2139

최고총괄변호사